

News

은행 플랫폼 경쟁 본격화하나... 당국 규제완화 예고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차원에서 은행의 플랫폼 사업 규제 완화 예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지난 28일 관련 제도적 여건 조성 언급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통합금융서비스 제공 가능해 특혜논란... 은행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만들기에 열 올려...

가계부채 조이기에 은행 '전세·잔금 대출' 심사 강화

연합뉴스

금융당국, 올해 연말에도 가계부채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조 이어가기로... 전세자금 및 잔금 대출 심사 강화 예정
전세자금 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함... 내년 1월부터 금소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것 예고

내년 가계대출 총량한도 은행별로 0~5% 차등 부여

뉴시스

금융당국,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 관리 실적에 따라 금융사별로 차등 부여하는 방안 검토 중
이달 중순 5대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율 예정... 1금융권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모두 적용한다는 방침

기관 투자 받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속타는 P2P금융

파이낸셜뉴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록기업들, 금융당국의 애매한 유권해석 문제로 기관투자자 유치를 못해 어려움 겪고 있어... 추가 유권해석 필요할 것으로 예상
금융위는 "다만 온투법상 관련 규정 및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토록 명시하고 있어 중합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아... 온투법, 저축은행법 적용 관련 혼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검증 기준 마련된다

데일리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무·저해지보험이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
무·저해지 상품의 예상 해지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판매 경쟁 과열 중... 앞으로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하고, 기간 경과할수록 하락

보험사, 인력 구조조정 가속화되나...KB손보가 신호탄?

아시아투데이

2023년 도입 새 회계기준과 새 건전성 기준 적용에 대비해 인력감축에 따른 고정비 절감부터 손질 중
내년부터 외국계 보험사들의 국내 시장 이탈 가속화와 소형보험사 중심의 매각 등이 전개되면 M&A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

IPO·증시 호황에 IB 수익률도 쑥쑥... NH·한투 이어 삼성도 '영업익 1조'

디지털타임스

삼성증권,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조 1,183억원 기록...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1조 클럽 입성 소식을 알린데 이어 세 번째
모두 IB부문이 실적을 견인... 다만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로 브로커리지 관련 수익은 줄어든 것으로 전망

외국인 독식한 공매도시장...셀트리온 21% 곤두박질

e대한경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 대상으로 공매도 재개된 이후 6개월 동안 공매도 잔고금액 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코스피·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 총 73조 5,240억원으로 이중 외국인 거래대금 75.2%... 개인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 목소리 높아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할 수 없습니다.